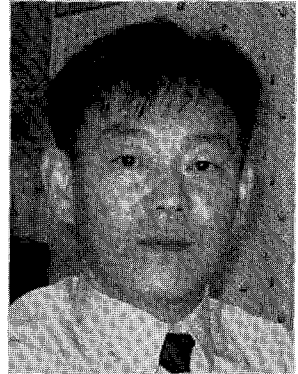


양계농장에서의 사료비 절감 방안(채란계)

주령별 적절한 사료교체로 생산성 향상



유 한 진 우성사료(주) 부장/양계PM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생산비 절감의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나며 생산비 절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사료비를 절감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현금구매

외상구입으로 비싸게 공급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본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IMF 이후 각 사료회사에서 미수금과 회전 일을 줄이기 위해 연체에 대해 높은 이자를 물림으로 외상구입 시 사료가격이 매우 높다. 은행금

리는 많이 내렸으나 사료회사의 연체료는 비싼 편이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현금으로 사료를 구매하는 것이 사료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

2. 적절한 영양소 공급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영양소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면 제거한다. 몇 년 전부터 경쟁적으로 CP를 올려 왔으나 닭의 주령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영양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CP를 따지기보다는 실제 사용 가능한 영양소와 주령별 영양수준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1) 첨가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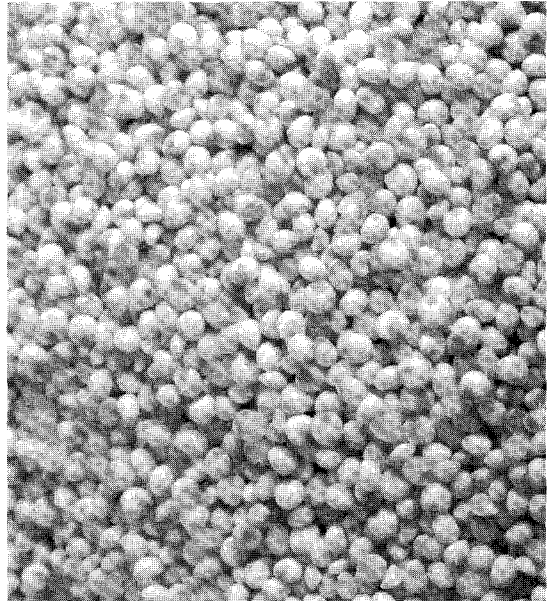
닭에게 이롭다고 이것저것 첨가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꼼꼼히 따져본 후 현재 닭의 주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건강한 사람이 1년 12달 보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요즘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첨가제를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좋은 경기가 마냥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꼭 필요한 것만 첨가하도록 한다

2) 주령별 사료교체

단백질이 높은 사료를 처음부터 도태할 때까지 급이하는 농장도 상당히 많은데, 이는 사료비의 낭비는 물론 산란후기의 생산성도 나쁘게 한다. 대부분의 사양가들은 단백질이 높은 사료를 공급하면 산란율 등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란후기(특히 50주령 이후)에 영양수준이 높은 사료를 계속 급여한다면 난중이 너무 커지고, 난각과 난각색이 빨리 나빠지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또한 단백질이 높은 사료를 비싼 가격에 급이하면서 난각과 난각색 개선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이는 2중의 낭비를 초래하는 농장이 많이 있다. 만약 전 산란기간에 한 가지 사료를 급여한다면 처음부터 영양스펙을 낮추어(CP 16~17%) 급이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3. 사양관리상 사료낭비의 요인 제거

가. 환경온도 : 계사 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겨울철에 환기를 무시하고 온도만 높게 유지한다면 사료비 절감으로 얻는 이익보다, 질병 등으로 인



한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최소 환기량을 유지하면서 온도를 높게 유지해야 하며 세심한 주의와 시설이 따라주어야 한다.

나. 급이통 비우기 : 1일 1회 이상 급이통을 완전히 비우도록 한다. 소량씩 여러번 급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육성기 체중조절 : 중추는 표준체중 보다 크게 키우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세계적인 육종회사의 전문가를 일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사양시험을 통해 만들어 놓은 표준 체중을 무시하기보다는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육성기 체중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는 것은 전 산란기간 동안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요즘처럼 특란과 대란의 가격차이가 적을 경우 더욱 필요한 방법이다

4. 사료 공동구매

소량 구매보다는 대량 구매시 비용이 저렴하다.

거래조건과 여신 등의 차이가 있으나 공동구매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5. 환경개선

양계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낡은 곳을 수리 보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한다.

6. 질병 예방

사료비 절감을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질병이 발생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차단 방역과 백신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한다. 높은 난가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하여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농장이 적지 않다. 앞

으로의 축산은 시세에 좌우하기 보다는 질병과의 전쟁이 될 것이다.

7. 신기술 및 전산화

항상 새로운 지식과 사양관리 기술에 관심을 갖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첨단기법을 농장 경영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 농장에서도 업무개선점을 꾸준히 찾는 등 연구하는 자세로 일을 한다. 또한, 농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고 전산화를 실현하여 경영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개선책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계란가격이 좋아지는 것은 덤으로 생각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하는 사양가가 되시기를 희망한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동광축산컨설팅(구,동광공업)

대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